

투데이 칼럼

황토현 전승일(5.11)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촉구한다

그간 정읍시에서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지난 14년간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의 제정이 난항과 지연을 거듭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기념일이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바 역할을 다해왔다.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학관련 지역 기념일중 법정기념일로 선정해야 하는 타당성이 제일 높은 지역기념일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선정기준으로는 ▲역사성(기념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의의), ▲상징성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높은 기념일), ▲지역참여도 (기념일 관련 지역 지자체의 지원현황 및 참여도, 동학관련 유적지, 기념사업, 자체기념행사 추진 내용 등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무장기포일), 부안군(백산기포일), 정읍시(황토현전승일) 전주시(전주화약일)가 접수하였고 오는 10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황토현 전승일로의 국가기념일이



이상길

정읍시의회 의원

제한함으로써 그간 쌓였던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불신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정읍시민들의 바람이다.

1893년 11월 고부 상을 점령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를 징벌하며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등을 약속하는 사발통문 계획을 세운 후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침략을 추구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이다.

승고한 정신은 구국합일의병정전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온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정신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삶의 가치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져 한국 근 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높은 뜻은 오늘의 시대정신의 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엄숙히 촉구한다.

최초의 전투인 황토현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둬 혁명의 전국화를 이끈 승리의 날이며 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날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최초로 『갑오동학혁명탑』이 1963년 황토현전승지에 건립될 당시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기림 이병기)가 서울 퍼린 공안정국에서도 최초로 『혁명』이라 명시한 기념물을 세울 장소로 전국에서 정읍 황토현전승지를 지목한 것은 동학농민 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전승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읍시에는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시설이 30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에 51년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동학선양사업 추진 메카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소재해 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혁명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확대되고 절정에 이르렀느냐는 점이다.

황토현 전승일은 최초 전투일, 최초 승전일, 30여곳의 동학농민 혁명정신 계승시설, 국내최초 전승탑, 51년간의 전승일 기념제개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기념관등이 명백한 증거와 또렷한 기준이 되고 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지자체간의 갈등 확산을 종식하고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며 평화의 물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정읍시의회에서는 10월 17일 문체부 공청회를 앞두고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정읍시의원 공동발의로 10월 10일 제정추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사설

청년층 붙잡아줄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을 붙잡아줄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젊은이의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래가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게 구태연한 대책으로는 그 악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을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미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다 오 허허 웃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저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4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기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야 한다. 그들은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고용 쇼크를 말하면서도 언급했 거니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한 두 번 나서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지역발전이 최고 관심사 돼야

정부가 동서 철도 건설과 관련 해 언급한 것을 다시 훑어 보는 기분이 쓸쓸하다. 그게 실속이 없는 덕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떨 수가 없어서이다. 매년 운만 띄우게 해서는 지역 발전이 될 턱이 없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의 의의식 속에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시류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느 때고 지역 발전이 항상 최고 관심사가 돼야 한다.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거나 발전 보폭이 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미미하기 이례데 없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형 국책 사업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새만금 사업도 그렇지만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2% 부족하다. 더 뛰어야 한다. 더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무슨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탄소단지 조성 사업 정도가 고작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저번에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애 정부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단히 뛰어 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할 때이다.

독자제언

주차차량 물괴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누구나 한번이상 다른 사람이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심권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교통사고중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경도이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112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난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빠른 피해회복과 가

해차량특징에 큰 도움이 되어 신속한 사고처리가 될 것이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메모하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범위가 가해차량 특징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둘째, 주변 CCTV설치여부 확인이다. 만약 피해장소 주변에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동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되고, 사실 CCTV라면 설치되어 있는곳의 주소를 확인해두자. 셋째, 블랙박스 영상화보다. 피해발견시 곧바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 또는 녹화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녹화영상이 덮어써져서 삭제되는 잘못이 없도록 보존해야한다. 이재욱 전북경찰청경찰관 기동대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네팔 국립대병원엔 도착한 희생자 시신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원 등 희생자 시신이 실은 헬기가 14일 카트만두 소재 네팔국립대학병원에 도착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한 시신을 옮기고 있다. 이날 구조대는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의 시신 수습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